죽음으로 읽는 서양 근현대 철학사 제5강

***성숙한 헤겔의 정신: 상호인정으로서의 자기의식**

+욕구의 단계

'자기의식'의 초기 단계에서 자아는 그 자신을 욕구(Begierde)에 의해 인도된 행위들을 통해서만 인식한다. 그런데 자아는 선택이나 사랑과 같은 다른 형식의 의욕이 아니라 오직 욕구를 통해서만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데, 왜냐하면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생명으로서의 자기의식이기 때문이다. 생명체로서의 자아는 자기의 동물적인 욕구들을 통해서 존재하며, 자기가 모든 실재라는 주장을 확립하고자 시도한다. 그렇다면, 욕구로서의 자아가 자기가 모든 실재라는 것을 증명하길 원한다는 것은 곧 자아가 대상들을 소비함으로써, 즉 파괴함으로써 대상들에 대한 자아의 의식적 통제를 증명하길 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자아는 욕구의 단계에서는 결코 절대적 자립성을 획득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자아가 자기의 경험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의 욕구에 의해서 대상을 파괴하는 것에 의해서이기 때문이다. '욕구-대상 파괴'가 자신의 절대적 자립성을 확증하기 위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자아는 어렴풋이 깨닫게 되는데, 왜냐하면 욕구는 두 가지의 극단들 속에 빠져 버리기 때문이다. 첫째로, 자아의 욕구는 여전히 외부의 자립적인 대상에 의존한다. 왜냐하면 욕구란 그 본성상 내가 가지지 못한 어떤 것에 대한 욕구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둘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아는 대상에 의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아는 대상을 이미 소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아는 이러한 소비를 통해서 결국 공허한 자기동일성에게로 되돌아왔을 뿐이다. 이와 같이, 욕구의 단계에서 자아는 자기 자신과는 전적으로 다른 대상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오직 자기 자신에게서만 머무를 뿐이다. 따라서 자아는 자기가 욕구를 통해 객체들이 자기의 육체적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함으로써 모든 실재에 대한 자신의 통제를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즉 자아는 이제 자기 자신 바깥에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배와 예속**

처음에 자아가 마주했던 객체들은 소비할 수 있는 생명체들이었다. 그런데 자아는 다른 생명체들에 대해, 심지어 자아 자신과 동일한 유기체적 구조와 육체를 가진 것으로서 나타나는 존재들, 즉 타자들에 대해 자신과 동등하고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하길 거부한다. 이제 자아는 자기의 절대적 자립성을 확립하기 위해 타자들에 대한 자기의 지배와 힘을 보여주고자 시도한다. 그리고 자아는 타자들을 이성적 존재라는 지위를 지니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저 생명체라고만 생각하는 간주한다.

+인정에 대한 요구

자아가 자기의 절대적 자립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타자들의 인정을 획득해야만 한다.

+생사 투쟁

그런데 만일 자아가 타자들의 인정을 획득하고자한다면, 자아는 타자들과의 생사 투쟁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자아와 마찬가지로 타자들도 역시 자신들의 절대적 자립성을 실현하고자 원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투쟁이 생사 투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아가 자기의 이성

적 지위를 증명하는 길, 즉 자기가 단순한 생물체들에 대한 그리고 동물적 욕구의 영역에 대한 힘을 지닌다는 것을 증명하는 길은 오직 자신의 생명을 거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적에 대한 자비

그런데 만일 자아가 생사 투쟁을 통해서 타자의 인정을 획득하고 한다면, 자아는 패배한 적을 죽일 수 없다. 왜냐하면 적을 죽일 경우, 자아를 인정할 타자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주인 대 노예

자아는 생사 투쟁에서 승리할 경우 두 가지 상황에 봉착한다: 1. 승리한 자아는 인정을 획득하기 위해서라도 패배한 적을 죽일 수 없다. 2. 하지만 패배한 적이 장래에 다시 자아를 공격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 이 경우, 자아의 최선의 선택은 적을 노예로 삼는 것이다. 이제 승리자와 패배자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갖는다. 주인에게 있어서 노예는 주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이다. 주인은 노예를 동물로서 취급한다. 왜냐하면 노예는 인정을 위한 생사 투쟁에서 죽음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 주인과 노예 관계는 상호인정으로 향하는 결정적인 발걸음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비록 주인은 노예에게서 자신과 동등한 이성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주인은 노예에게서 *자립적인* 생명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욕구의 단계에서 욕구는 자기의 대상의 자립성을 경험하기는 하였지만, 결국 욕구는제한 없는 무한퇴행으로 귀결되었다. 하지만 주인과 노예 관계에서 주인인 자아는 이제 자신의 욕구들을 제한해야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예에 대한 주인의 인정은 의식의 영역 바깥으로 나가는 결정적인 발걸음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주인과 노예 관계의 붕괴

그런데 주인과 노예 관계에서 자아는 여전히 자신이 자율적이고 자립적인 존재라는 인정을 획득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자신이 동물의 지위로 강등시킨, 그리고 자신의 목적의 도구로 격하시킨 노예의 인정은 자아에게 거의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개와 싸운다. 이겼다. 깨갱거린다. 이것은 나의 세계 지배력에 대한 인정의 표시인가? (훗) 인정은 지배나 강제로부터 유래할 경우 가치가 없다. 즉 인정은 다른 이의 오직 자유로운 선택과 자유로운 판단에서 나오게 될 때만이 가치를 갖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인과 노예 관계는 주인에게 그가 원하던 인정을 주지도 못한다. 게다가 주인과 노예 관계는 주인의 이성적 존재로서의 지위를 격하시킨다. 왜냐하면 노예를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그리고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취급하는 주인은 동물적 욕구의 단계로 되돌아가게 되기 때문이다. 주인은 노예의 노동의 산물을 소비한다. 그렇다면, 주인은, 마치 욕구의 단계에서 욕구의 대상에 의존하듯이, 노예의 노동에 의존하는 것이다. 결국, (주인에게 이성적 존재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노예가 주인을 인정하기에 부적합하다면, 주인은 인정을 받기에 부적합한 것이다.

+노예의 해방

만일 주인이 자유로운 이성적 존재라고 인정받길 원한다면, 먼저 주인은 노예를 자유로운 이성적 존재라고 인정해야만 한다. 그리고 만일 주인이 노예를 자유로운 이성적 존재라고 인정할 경우, 주인은 또한 동물적 욕구의 상태에서 머무르는 것을 중단할 수 있다. 주인은 노예가 그 자체에서의 목적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성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결국, 주인은 노예를 지배하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노예를 자신과 평등한 자로서 인정하는

것에 의해서 자신의 자유를 입증하는 것이다. 요컨대, 이성적 존재로서의 자기 인식은 오로지 상호적인 인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상호인정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자기의식의 공동구조, 즉 타자가 자아를 통해 자신을 인식하고, 자아가 타자를 통해 자신을 인식하는 것을 헤겔은 '정신(Geist)'인데, 정신이란 '자기의 타자존재 속에서의 자기 자신의 통일(die Einheit seiner selbst in seinem Anderssein)'을 뜻한다. 그런데 절대적 자립성에 대한 자아의 애초의 요구는 정신으로서의 자기의식을 통해서, 즉 상호인정을 통해서 확증되었는가? 그렇다. 왜냐하면 만일 절대적 자립성이 자아가 자기 바깥의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두 개의 개별적 자아를 자기 자신 내에 필연적으로 통합한 전체로서의 자기의식은 그 자신의 바깥에 어떤 것도 지니지 않기 때문이다.

***헤겔과 죽음**

+사후의 삶의 부정(1): 개체성의 문제

역사적으로 자유로운 개체(l'Individu libre historique) 혹은 개인(la personne)라는 개념은 유대-기독교 전통이 헤겔에게 전해주었다. 사실 헤겔 이전에도 데카르트, 칸트, 피히테 등은 기독교적 철학을 시도했었다. 하지만 이들은 인간의 불멸 혹은 영혼의 불멸이라는 이념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런데 헤겔은 유대-기독교적 전통을 전적으로 수용한 것은 아니다. 헤겔에 의하면, 정신적인 존재 혹은 변증법적 존재는 불가피하게 시간적이며 유한하다. 무한하며 영원한 정신이라는 기독교의 개념은 그 자체로 모순적이라는 것이다.

+사후의 삶의 부정(2): 죽음의 철학 혹은 무신론의 철학

헤겔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역사적으로 자유로운 개체성이라는 (이교도적 고전시대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유대-기독교적 개념을 적용시키려고 하였다. 하지만 이 변증법적 개념을 철학적으로 분석하면서 헤겔은 이 개념이 유한(finitude) 혹은 시간성을 함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인간이 역사적으로 자유로운 개체가 되는 것은 오직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être mortel)라는 조건하에서만, 즉 시간 속에서 유한하며, 또 자신의 유한을 의식하고 있다는(et conscient de sa finitude) 조건하에서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렇게, 헤겔은 사후의 삶(survie)을 부정하였다. 그런데 사후의 삶을 부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신 자체를 부정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헤겔은 급진적으로 무신론적이고 세속화된 형태로서만 유대-기독교적 전통을 받아들인다. 달리 말해서, 헤겔이 말하는 절대-정신 혹은 실체-주체는 신이 아니다. 그런데 헤겔에 의하면, 존재의 언어적 계시는 오직 계시하거나 말하는 존재가 본질적으로 유한할 경우에만,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헤겔의 정신은 참으로 신적인 정신이 아니라 인간적 정신이다. 헤겔의 철학은 어떻게 그리고 왜 인간이 자기 자신과 그가 거기에서 살아가는 세계에 관해서 일관된 방식으로 말하게 되는 지를 설명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 설명은 역사적으로 자유로운 개체로서 이해된 인간에 관한 현상학적인 기술이며, 형이상학적인 기술이며, 또한 존재론적인 기술이다. 코제브에 의하면, 헤겔의 인간학적 철학 혹은 변증법적 철학은 최종 분석에 있어서 죽음의 철학(une philosophie de la mort)에 다름 아니다.

+왜 헤겔의 철학은 죽음의 철학(무신론의 철학)인가?: 부정성

헤겔에 의하면, 인간은 체화된 부정적인 것(das Negative), 즉 부정성 자체이다. 그런데 부정성은 존재론적 구도 위에서는 순수 무이다. 이것이 바로 헤겔이 인용문에서 죽음을 '비-현실

성'이라고 칭하는 이유인데, 여기서 비-현실성이란 부정성 혹은 부정적인 것(das Negative)을 뜻한다. 그런데 만일 인간이 활동이라면, 그리고 만일 활동이 죽음처럼 나타나는 부정성이라면, 인간은 (자신의 인간적 존재 속에서 또는 말하는 존재 속에서) 바로 죽음이다.

그렇다면, 말을 철학적으로 해명한다거나 인간을 말하는 자로서 해명한다는 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이 참으로 자기의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의 유한성을, 자신의 죽음을 의식하는 것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인간은 유한하며,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헤겔에 의하면, 인간이 지혜에, 자기의식의 충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부정적인 것을 눈 앞에 대면해서 바라보아야만 하며, 부정적인 것 주위에서 거주해야만 한다. 이러한 마술적인 힘, 즉 부정성 혹은 무를 주어진 존재로 변형시킬 수 있는 신비한 힘을 헤겔은 주체 혹은 오성의 추상적 자아라고 칭했다. 이것은 곧 인간의 존재 자체가 바로 부정적 활동임을 뜻한다. 즉 인간의 존재 자체는 죽음인 것이다. 요컨대, 인간은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죽음이다.

지연된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존재는 주어진 것의 부정에 의한 무의 긍정이며, 또는 창조이다. 따라서 인간의 존재는 도대체가 주어진 존재가 아닌 것이다. 인간의 존재는 오직 그것이 변증법적으로 또는 매개된(vermittelt) 방식으로 이러한 자연적 직접성을 부정적 활동을 통해서 제거할 경우에만 인간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 자신을 부정한다. 즉 자기 자신을 창조하고, 자기 자신을 변형시키는 것은 바로 인간 자신인 것이다. 인간은 그 자체로 활동적 부정에 의해서, 즉 언어적이고 계시적인 부정에 의해서 주어진 존재를 매개하는 바, 부정성으로서의 인간은 이러한 매개(Vermittelung) 자체이다.

+인정(Anerkennen)과 자살로서의 인간의 죽음

헤겔이 <정신현상학>에서 절대 정신의 자기 인식에 관해서 말할 때,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계시되는 것은 존재(또는 있는 바의 일자)의 (무한한) 전체성이 아니다. 오히려 이 전체성은 그것의 제한된 부분들에 의해서 계시되며, 바로 그러한 방식으로 스스로 계시된다. 이렇게 볼 때, 정신, 즉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계시되는 존재는 신이 아니라 세계 속에 있는 인간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적 인간 존재에 의한 존재의 계시는 언어적이거나 변증법적인 계시인 바, 이 계시는 시간 속에서 진행된다. 이러한 언어적 계시 속에서 인간적 존재는 주어진 존재의 전체성에 관계한다. 먼저, 부정적 활동과 이 활동으로부터 나오는 잘못된 말에 의해서 그리고 결국 현인의 수동적인 관조에서 발생하는 적절한(adéquat) 말에 의해서. 현인은 이 수동적 관조 속에서 주어진 존재에 의해 만족(Befriedigung)하는 가운데 자신의 말 속에서 주어진 존재를 부정하는 것을, 주어진 존재를 변형하는 것을 그친다. 그런데 세계에 대한 완전한 의식과 자기에 대한 완전한 의식을 전제로 하는 현인의 이러한 만족은 오직 죽음의 의식 속에서만 그리고 죽음의 의식에 의해서만 그 자체로 완전함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헤겔이 말하는 '만족'이란 바로 인정(Anerkennen)에 대한 욕망, 즉인정에 대한 인간학적이고 인간적인 욕망의 충만한 만족을 의미한다.

+인정 투쟁과 자살

[[[인정 투쟁-삶을 건 투쟁. →**<u>인간이기 위해서는 죽을 수 있어야만 한다.</u>** 자신의 삶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어야만 한다)(doit pouvoir mourir et savoir risquer sa vie)]]]

“En me posant comme totalité de la particularité, je me supprime-dialectiquement moi-même en tant que totalité de la particularité; je veux être reconnu dans cette extension de mon existence, dans mon être donné et ma possession; [...] je supprime-dialectiquement cette existence, et je ne suis reconnu en vérité comme doué-de-raison[=humain], comme totalité, que dans la mesure où, en ayant pour but la mort de l’autre, je risque moi-même ma propre vie et supprime-dialectiquement cette extension de mon existence elle-même, [c’est-à-dire] la totalité de ma particularité.

Cette reconnaissance *de la particularité de la totalité amène avec soi le néant de la mort*. [...] [Elle] doit nécessairement avoir pour but la mort de l’autre et la sienne propre, et elle n’est [=n’existe] que dans la réalité-objective de la mort.”(Hegel, *Conférences de 1803-04*, vol. XIX, pp. 228, 1.17-229, 1.31 et 230, 1.7-17, A. Kojève, *Introduction à la lecture de Hegel*, p. 566-567에서 재인용.)

“개별성의 전체성으로서 나를 정립하면서 나는 나 자신을 지양한다. 즉 나는 개별성의 전체성으로서의 나 자신을 지양하는 것이다. 나는 나의 존재의 이러한 확장 속에서, 주어진 나의 존재 및 나의 소유 속에서 인정받고자 한다. [...] 내가 이 존재를 지양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내가 이성을 가진 것으로서[=인간으로서], 전체성으로서 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내가 타자의 죽음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나 스스로가 내 고유한 목숨을 거는 한에 있어서만** 그리고 이러한 나의 존재 자체의 확장을, [즉] 나의 개별성의 전체성을 지양하는 한에 있어서만 가능하다.

이와 같이, 이러한 *전체성의 개별성에 대한* 인정은 *그 자체로 죽음이라는 무를 끌어들인다*. [...] [의식은] 필연적으로 타자의 죽음과 자신의 고유한 죽음을 목적으로 가져야만 하며, 또한 의식은 죽음의 객관적 현실성 안에서만 존재한다[=실존한다].”

***인간의 죽음은 자살이다**

헤겔에게서 인간적 죽음은, 인간의 죽음은, 인간 즉 죽음은, 다시 말해서 (결과적으로) 참으로 인간적인 모든 존재는, 자살(suicide)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Il apparaît à la Conscience [=à l’homme engagé dans la Lutte pour la reconnaissance] [prise] en tant que conscience, qu’elle a pour but la *mort* d’un autre; mais [en soi ou pour nous], c’est-à-dire en vérité,] elle a pour but sa propre mort; [elle est] suicide, dans la mesure où elle s’expose au *danger*.”(Hegel, *Conférences de 1805-06(1)*, vol. XX, p. 211, 1.34-36, A. Kojève, *Introduction à la lecture de Hegel*, p. 568에서 재인용.)

“의식은 타자의 *죽음*을 목적으로 갖는다는 것이 의식으로서 [고려된] 의식에게[=인정을 위한 투쟁 속에 참여하고 있는 인간에게] 나타난다. 하지만 [그 자체로 또는 우리에게 있어서, 즉 진실로] 의식은 자신의 고유한 죽음을 목적으로 갖는다. 의식이 *위험*에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한에 있어서 [의식은] 자살이다."

+노예가 주인을 인정한 다는 것의 역설

그런데 진정한 인정은 오직 인정하는 자를 제거함으로써만 가능하다. 즉 인정하는 자가 죽을 때에만 비로소 진정한 인정이 성립된다. 그러나 노예는 살아남기를 택한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겔은 노예에게 인간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헤겔에 의하면, 엄밀하게 말해서 인간, 즉 역사를 자유롭게 창조하는 개별자는 바로 노예이다. 결국, 죽음이 인간성의 최종 근거이다. 자신이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세계 속의 유일한 존재인 인간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의식 혹은 자기를 의식하고 있는 죽음*이다.*